

박지원의(朴趾源)의 〈일신수필(駉汎隨筆)〉에 대한 구조적 이해*

—중국 인식과 연계하여—

이홍식**

<차례>

1. 들어가며: 박지원, 천하의 대관(大觀)을 꿈꾸다
2. 〈일신수필서〉, 천하를 대관(大觀)하는 법을 논하다
3. 〈일신수필〉, 천하의 대관(大觀)을 기록하다
4. 『열하일기』, 〈일신수필서〉를 구현하다
5. 나가며: 〈일신수필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기대하며

〈국문초록〉

본고는 연행록을 매개로 조선 후기 문인지식인의 대중국 인식의 한 유형을 천착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박지원의 〈일신수필〉을 주된 분석 텍스트로 삼았는데, 중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 텍스트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 조선 후기 대중국 인식의 한 유형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서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문과 〈일신수필〉의 관계 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박지원이 중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면모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성찰하여 〈일신수필서〉를 다시 읽어내고, 그 결과 위에서 〈일신수필〉뿐 아니라 『열하일기』와의 구조적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박지원이 그 서문을 통해서 중국의 대관(大觀), 즉 중국의 제도를 보려 했으며, 이를 위해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과 달리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

* 본고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세계인문학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量)의 한계를 벗어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일신수필〉뿐 아니라 『열하일기』 또한 이 서문에서 제시한 목적과 방법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일록(日錄)을 중심으로 보고 들은 바를 서술하되 그중에서 정량이 미친 바를 새로운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그 정량이 미치는 방향은 천하의 대관, 즉 중국 고유의 법과 제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의 〈일신수필서〉와 일록 및 각종 기문(記文) 등은 조선 후기 문인지식의 대중국 인식의 한 유형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 이를 만하다. 이 가운데 서문은 〈일신수필〉뿐 아니라 『열하일기』 구성과 서술의 토대가 되는 만큼, 〈일신수필〉의 서문이자 『열하일기』 전체를 관류하는 서문으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일신수필〉, 〈일신수필서〉, 천하의 대관(大觀), 중국의 제도, 구이지학(口耳之學), 정량(情量)

1. 들어가며: 박지원, 천하의 대관(大觀)을 꿈꾸다

조천록(朝天錄)과 연행록(燕行錄)은 근대 이전 중국 북경을 사행한 뒤 그 견문(見聞)과 감상을 정리해놓은 사행 기록이다. 고려 말부터 시작하여 1894년 김동호(金東浩)의 마지막 사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¹⁾ 삼사(三使)와 역관과 자제군관(子弟軍官) 등 사행에 참여했던 수많은 조선의 문인지식인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천록과 연행록을 남겨 놓았다. 이 사행기록에는 산천과 인물과 문물과 제도 등 조선의 문인지식인들이 견문한 당대 중국의 인문지리와 각종 문화 정보뿐 아니라 그에 대한 비평과 감상까지 망라되어 있다. 물론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고 관심 있게 보고 들은 바도 다르지만, 사행에 참여하는 일은 조선의 문인지식인들이

1) 고려말의 사행과 조선의 마지막 사행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의 遼東半島 경로 고찰』, 『漢文學報』 20, 우리한문학회, 2009; 임준철, 『대청사행(對淸使行)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중국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구석 땅에서 편벽된 기운을 타고나서, 밭은 대륙의 땅을 밟아 보지 못했고 눈은 중원의 사람을 보지 못했으며,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제 강역(疆域)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의 다리가 길고 까마귀의 빛이 검듯이 각기 제가 물려받은 천성대로 살았고, 우물의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마냥 제가 사는 곳이 제일인 양 여기고 살아왔다. 예(禮)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하다고 여겨 왔으며, 이른바 사민(四民)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 있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빈약해져만 갔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서 생긴 폐단이다. 만일 장차 배우고 묻기로 할진대 중국을 놓아두고 어디로 가겠는가?²⁾

위에 소개한 예시문은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에 붙인 서문이다. 이용후생(利用厚生)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박지원은 아시아의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벗어나 중국을 묻고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서문의 말미에서 “이것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진실로 비 뿌리고 눈 날리는 날에도 연구하고, 술이 거나하고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토론해 오던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한 것뿐이다.”³⁾라고 한 데서 보듯, 박지원에게 사행에 참여하여 중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일은 오래 전부터 연구하고 토론해 왔던 바를 확인하고 실증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만큼, 중국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

2) 朴趾源, <北學議序>, 『燕巖集』, “吾東之士, 得偏氣於一隅之土, 足不蹈函夏之地, 目未見中州之人, 生老病死, 不離疆域, 則鶴長烏黑, 各守其天, 蛙井蚰田, 獨信其地. 謂禮寧野, 認陋爲儉, 所謂四民, 僅存名目, 而至於利用厚生之具, 日趨困窮. 此無他, 不知學問之過也. 如將學問, 舍中國而何.” * 상기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다.

3) 朴趾源, <北學議序>, 『燕巖集』, “此豈徒吾二人者得之於目擊而後然哉. 固嘗研究於雨屋雪簷之下, 抵掌於酒爛燈地之際, 而乃一驗之於目爾.”

다만 1644년 건주여진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워 동아시아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한 이후, 중국[청]을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중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배울 것인지의 문제는 당대 조선의 문인 지식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北伐論)과 존주론(尊周論)이 정치와 외교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잡은 터라 더욱 그러하였다. 이에 박지원은 출발에 앞서 <도강록서(渡江錄序)>를 지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⁴⁾ 이어서 <일신수필서>에서 중국의 무엇을 어떻게 보고 배울 것인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된다.⁵⁾

<일신수필서>는 『열하일기』 소재 서문 가운데 유일하게 미완의 글인 데다 구성 단락들이 논리정연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자들이 이 글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인 것은 이 글에 담겨 있는 의미, 즉 중국을 어떻게 보고 배울 것인지의 문제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거니와 그 내용이 <일신수필>뿐만 아니라 『열하일기』의 구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의 연구는 <일신수필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연구자마다 견해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박지원이 이 서문을 통해

4) 박기석, 「<도강록>에 나타난 연암의 관심사」,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연구학회, 2011 ; 박수필, 「<도강록(渡江錄)>에 나타난 경계의 인식론」, 『한국한문학연구』 56, 한국한문학회, 2014 ; 이현식, 「<도강록서>, 『열하일기』를 위한 위장」, 『동방학지』 1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5) 연행사를 보내는 송서(送序)에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신의 역할 등 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드러나 있지만, 조천록이나 연행록을 기록하면서 작가 스스로 중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에 그에 맞게 체험하고 기록한 경우는 『열하일기』가 유일해 보인다. 연행사를 보내는 송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안대회, 「조선 후기 연행(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연행사(燕行使)를 보내는 송서(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 한국실학회, 2010 ; 백진우, 「燕行 送序를 통해 본 18세기 南人系 文人들의 意識世界」, 『동아한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1.

궁극적으로 말하려 했던 바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⁶⁾ 더하여 서문을 단지 <일신수필> 내 장관론으로 일컬어지는 글과 「거제(車制)」만을 연결하여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라 <일신수필>뿐만 아니라 『열하일기』와의 구조적 관계 등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일신수필서>를 다시 읽어내고, 그 결과 위에서 <일신수필> 및 『열하일기』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일신수필서>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일신수필서>와 「일신수필」 및 『열하일기』와의 구조적 관계 또한 구체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신수필서>, 천하를 대관(大觀)하는 법을 논하다⁷⁾

<일신수필>은 소흑산(小黑山)에서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여정, 즉

-
- 6) 2장에서 서문을 다시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다루는 만큼 여기서는 관련 연구성과를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 7) 이현식과 박기석은 서문의 내용을 학문(문)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서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학문론과는 그 층위가 다르다. 또한 학문(문)의 차원에서 서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장관론에서 중국에서 보아야 할 대상, 즉 천하의 대관(大觀)에 대해 논한 것과 연결이 매끄럽지 않게 된다. 서문의 첫머리에서 비록 학문을 언급했다 할지라도 서문의 전체 내용과 <일신수필>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천하의 대관(大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하여 김명호는 <일신수필>서문이 동·서양 사상의 소통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서문의 본지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기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현식, 「<일신수필> 서문, 청나라 중화론을 위한 학문론」, 『동방학지』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박기석, 「<일신수필>에 나타난 연암의 관심사-북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4,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김명호, 「『열하일기』 <일신수필> 서문과 동·서양 사상의 소통」,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1780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의 사행 체험을 정리한 것으로 〈일신수필서〉는 그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다. 박지원의 글이 대체로 그러하듯 〈일신수필서〉는 〈일신수필〉의 내용과 서술의 방향을 소개하는 서문의 일반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⁸⁾ 앞서 간략히 소개한 것처럼 천하를 대관(大觀)하는 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단지 입과 귀만을 의지하는 자들과는 학문을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 더구나 평소 그들의 정량(情量)이 미치지 못한 대상에 관해서는 말해 무엇하랴. 성인이 태산에 올랐더니 천하가 작아 보였다고 말하면, 그들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처가 시방세계를 두루 본다고 말하면 허망하다고 배척하고, 서양인들은 거대한 선박을 타고 둥근 지구의 저편에서 빙 돌아서 나왔다고 말하면 터무니없다고 질책한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 천지의 대관(大觀)을 이야기할 것인가?⁹⁾

위에 소개한 예시문은 그 모두에 해당하는 단락이다. 첫 문장에서 입과 귀만을 의지하는 사람과 정량(情量)이 넓지 못한 자와는 학문(學問)에 대해 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글의 전체를 관류하는 핵심 문장이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서 유교와 불교와 서학에서 세 가지의 예시를 끌어와 학문에 대해 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기고 부처가 시방세계를 두루 보며 서양인들이 항해를 통해 둥근 지구를 돌아서 나온 것은, 직접 보고 경험하여 얻어낸 분명한 사실이나 구이지학(口耳之學)을 일삼고 정량(情量)이

8) 일반적인 서문과 구분되는 박지원이 쓴 서문의 특징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박수필, 『박지원 서(序)의 서두 글쓰기 전략』,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9) 朴趾源, 〈駟汎隨筆序〉, 『熱河日記』, “徒憑口耳者, 不足與語學問也. 況平生情量之所未到乎. 言聖人登泰山而小天下, 則心不然而口應之, 言佛視十方世界, 則斥爲幻妄, 言泰西人乘巨舶逸出地球之外, 叱爲怪誕. 吾誰與語天地之大觀哉.” * 상기 번역은 김명호의 번역을 따랐다.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이를 믿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¹⁰⁾ 결국 첫 단락의 방점은 구이지학(口耳之學)을 버리고 정량(情量)을 넓히는 데 찍히게 된다.

아! 공자가 240년 동안의 역사를 다듬고 고쳐 『춘추』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 240년 동안 일어난 외교 군사에 관한 일들은 곧 하나의 꽃 피고 잎 지는 것과 같은 잠깐 사이의 일일 뿐이다. 아! 슬프다. 내가 지금 급히 글 쓰다 이런 생각이 든다. 먹 한 점 찍는 사이는 눈 한 번 깜박하거나 숨 한 번 들이쉬는 순식간의 일이지만, 눈 한 번 깜박이고 숨 한 번 쉬는 사이에도 이미 작은 옛날과 작은 오늘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하나의 옛날이나 하나의 현재 역시 큰 눈 한번 깜박이거나 큰 숨 한번 들이쉬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명예를 세우고 일을 이루겠다고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¹¹⁾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이다. 공자의 『춘추』를 상대화하여 그 안에서 명예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역사의 유한성을 내세워 의리의 무한성을 깨뜨리고 있는데,¹²⁾ 이 비판의 대상은 당시 존주(尊周)를 기치로 북벌(北伐)을 일삼으며 복수설치(復讎雪恥)를 떠벌리던 조선의

10) 이현식은 공자의 천하 보기는 경험적 인식, 석가모니의 시방세계 보기는 선형적 인식, 서양인의 천체 보기는 상황적 인식으로 규정한 뒤에 공자의 경험적 인식만 수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서문의 첫 단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박수밀은 정량(情量)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의 어리석음뿐 아니라 다른 사상에 대한 거부감과 지식 밖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함께 비판한다고 하였는데, 충분히 이해 가능한 해석이라 여겨진다. 다만 글의 구조만 놓고 볼 때 여기서는 김명호가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이 한계에 갇힌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단으로 비판받은 불교와 서학에 대해서 개방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11) 朴趾源, 《駟汎隨筆序》, 『熱河日記』, “噫. 聖人筆削二百四十年之間, 而名之曰春秋, 是二百四十年之頃, 玉帛兵車之事, 直一花開木落耳. 嗚呼. 吾今疾書至此, 而一墨之頃, 不過瞬息. 一瞬息之頃, 奄成小古小今, 則一古一今, 亦可謂大瞬息矣. 乃欲立名立事於其間, 豈不哀哉.” * 상기 번역은 박수밀의 번역을 따랐다.

12) 박수밀, 『열하일기 첫걸음』, 들베개, 2020, 114쪽.

고루한 선비들이다. 장론관(壯觀論)으로 일컬어지는 글에서 박지원이 언급했던 상사(上士)와 중사(中士)가 바로 이들이다.¹³⁾ 이들은 모두 서문의 첫머리에서 말한,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의 한계에 얽매어 천하의 대관(大觀)을 함께 논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공자와 석가와 서양인의 학문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인 셈이다.

나는 일찍이 묘향산에 올라가 상원암에서 묵었다. 밤새도록 대낮처럼 달이 밝아서 창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니 암자 앞에 흰 안개가 자욱하였고, 위쪽에 달빛을 받아서 마치 수는 바다 같았다. 수는 바다 밑에서 은은하게 코 고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자 승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아래 세상에는 바야흐로 크게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리치겠네.”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산에서 내려와 안주(安州)에 이르니, 지난밤에 과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쳐 평지에 빗물이 한 길이나 차올라 많은 인가가 떠내려갔다. 나는 말고삐를 잡고서 개연히 “어젯밤에 나는 구름과 비 너머에서 밝은 달을 껴안고 잤구나.”라고 탄식하였다. 묘향산은 태산에 비해 겨우 작은 언덕일 뿐이다. 그 높고 낮음에 따라 이갈이 경계가 다른데 하물며 성인이 천하를 굽어보았을 때에랴.

설산에서 고행한 저 사람은 공자의 집안에서 세 번이나 처를 내쫓고, 아들 백어가 공자보다 일찍 죽고, 공자가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종적을 감추었던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서 이 때문에 출가한 것이 아니라 만약 지(地)·수(水)·풍(風)·화(火)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공(空)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 이는 한심스럽다고 하겠다.

저들은 또 말하기를 성인과 불씨의 관찰은 아직 지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즉 천구(天球)에 의거해서 천문을 관측하고 별들을 어루만지며 다니므로, 자기들의 관찰이 두 사람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저들이 이국(異國)에서 말을 배우며 백발이 되도록 글을 익혀서 불후의 저술을 남기려고 함은 어찌서일까? 본래 이 몸이 현재에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지나간 시간적

13) 이는 <일신수필서>와 <일신수필>이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즉 둘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경계에 속하고 시간적 경계는 부단히 지나가므로, 예전에 입과 귀에 의존하여 학문이라 여겼던 것들 역시 증거를 취할 데가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번 여행에서.¹⁴⁾

그렇다면 천하를 대관(大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문이 미완이라 박지원의 생각을 오롯이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이어지는 위 단락을 통해 그 생각을 대략 엿볼 수 있다. 박지원은 세 단락에 걸쳐서 천하를 대관(大觀)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묘향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자의 천하 보기를 점검하고 이어서 석가와 서양인의 인식 방법을 따져 물었다. 그런데 그 서술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석가의 경우 고행을 통해 시방세계를 두루 보게 된 것은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보다 분명 낮지만, 그 깨달음을 모두 공(空)으로 돌려버리는 까닭에 박지원은 한심하다 비판한다. 서양인의 경우에도 스스로 공자와 석가보다 뛰어나다 일컫지만, 그들이 예전에 학문이라 여겼던 것들 역시 증거를 취할 데가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¹⁵⁾ 부정한다.¹⁶⁾ 반면에 공자의 천하 보기에 대해서는

14) 朴趾源, <馮汛隨筆序>, 『熱河日記』, “余嘗登妙香山, 宿上元庵. 盡夜月明如畫, 拓窓東望, 庵前白霧漫漫, 上承月光, 如水銀海. 海底殷殷有聲如鼯鼻, 寺僧相語曰, 下界方大雷雨矣. 旣數日出山, 至安州, 前夜果暴雨震電, 平地水行一丈 漂民廬舍. 余攬轡慨然曰, 曩夜吾在雲雨之外, 抱明月而宿矣. 妙香之於泰山, 纔崑崙耳. 其高下異界如此, 而況聖人之觀天下哉. 彼雪山苦行者, 非能逆觀於孔門之三黜, 伯魚之早沒, 魯衛之削迹, 而爲此出世也, 誠以地水風火, 轉眼都空, 此可寒心. 彼又謂聖人與佛氏之觀, 猶未離地, 則按球步天, 捫星而行, 自以其觀勝於二氏. 然異方學語, 白頭習文, 以圖不朽者, 何也. 蓋本爲此身現在, 而屬之過境, 境過而不已, 則昔之所憑以爲學問者, 亦無所取徵. 今吾此行.”

15) 김명호는 위의 논문 242쪽에서 “부단한 시간의 변화로 인해 입과 귀로만 전해서는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학문적 증거를 남기고자 해서일 것이다. …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서양인들이 한문으로 서학서를 저술하고자 하는 데 대해 세월의 무상함을 거스르는 헛된 노력이라고 비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본(조선광문회본)에서는 이것이 더 강화되어 유학의 견지에서 서학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16) 이현식은 위의 논문 172쪽에서 “서양에서 관찰한 사실들이 중국을 살피는 데에는

자신의 경험과 대비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다.¹⁷⁾ 박지원이 묘향산에서 그 아래의 세계를 부감한 것은 공자가 태산에서 천하를 내려다본 것의 축소판이다. 그런 만큼 석가와 서양인의 경우와 달리 1차적으로는 공자의 천하 보기를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지원은 이 경험을 통해서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라고 하여 비판적으로 본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서양인들의 학문은 상황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따를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비판으로 읽었다는 점에서는 김명호와 같지만 그 결은 차이가 난다.

- 17) 김명호는 『열하일기 연구』(창작과비평사, 1990, 138~139쪽.)에서 이 예화가 “우리의 인식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며 일면적인 타당성만을 지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였고, 박기석은 앞의 논문 13쪽에서 “자신이 경험한 세상이란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닫는다. 묘향산 상원암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연암은 나의 경험이 전부라 아니며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어느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란 극히 제한적이다. 세상은 넓고 커서 세상의 운행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박수밀 또한 『열하일기 첫걸음』(돌베개, 2020, 118쪽.)에서 “연암은 묘향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한 공간만을 전부라 여기는 인식의 한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평가한 뒤에 구이지학(口耳之學)에 빠진 조선의 고루한 선비를 여기에 빗대었다. 세 연구자의 견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아 보이며,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 분명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체 글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경험적 인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자신의 경험만을 옳다고 여기는 조선의 고루한 선비를 비판한 것으로 연결짓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은 경험적 세계인식에도 미치지 못한 자들이다. 이 부분에서는 공자의 천하 보기 방법으로 과연 연행 중에 천하의 대관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자처럼 직접 천하를 내려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종주는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태학사, 2001, 364쪽.)에서 “세상 이치가 보고 듣는 위치에 따라 그렇게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현식이 위의 논문 169쪽에서 “연암의 고백은 그때 자신도 산 위와 산 아래에서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이 경험 때문에 태산에 오른 공자가 천하를 작게 느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인식 변화를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한 것과 일맥이 통한다. 그런데 박지원의 고백은 그때 자신도 산 위와 산 아래에서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는다. 구이지학(口耳之學)에 얽매인 사람들과 달리 직접 산 위에서 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신이 보려고 하는 천하의 대관(大觀)에 곧바로 미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구이지학(口耳之學)에서 벗어나 천하의 대관(大觀)을 보는 분명한 길이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으로는 천하의 대관(大觀)에 이를 수 없음을 승려의 말을 직접 징험함으로써 알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구름 아래의 소나기와 천둥은 천하를 대관할 때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묘향산의 스님처럼 구름 아래의 소나기와 천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박지원의 고민은 여기로 자연스럽게 귀결되게 된다. 물론 그렇다 하여 박지원이 공자의 천하 보기를 천하의 대관(大觀)을 보기 위한 완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박지원은 공자의 천하 보기를 『맹자』에서처럼 도학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 세계인식으로 치환하여 그 경계에 들 수 있는 방법, 즉 구름의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널리 전적을 공부하고 예로써 자신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나 저들은 종신토록 잠꼬대하고 떠돌이로 사는 자들이다. 잠꼬대하는 것과 떠돌이로 사는 것을 그만 두어야만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천하의 대관을 이야기할 수 있다.¹⁸⁾

그렇다면 구름 아래의 세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에 소개한 조선광문회본 『열하일기』 외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박지원이 궁극적으로 말하려 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다.¹⁹⁾ 더하여

18) 朴趾源, <駟汎隨筆序>, 『熱河日記』, “吾夫子. 彼不乃云乎. 博學於文, 約之以禮. 彼乃終身於夢囈羈旅者耳. 惟不爲夢囈羈旅也, 斯可以語學問, 又可以語天下之大觀.” * 상기 번역은 이현식의 번역을 따랐다.

19) <일신수필서>는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현식과 김명호의 논문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다만 이현식은 충남대본 계열 중 하나인 조선광문회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보충 글을 박지원의 글로 보았고, 김명호는 박지원이 아니라 삼천(三泉)이란 다른 사람의 글로 보았다. 문맥의 흐름과 글에서 다루

조선광문회본 『열하일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아, 박지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박문약례(博文約禮)라는 진부한 방법으로 천하의 대관(大觀)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²⁰⁾ 석가의 잠꼬대와 서양인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는 것만으로 학문과 천하의 대관(大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은 모두의 입론에 비해 굉장히 허술해 보이며 입론과의 연결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문맥상 이 서문이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하려면 묘향산에서의 깨달음을 토대로 천하의 대관(大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서문의 미완성 때문에 박지원의 생각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지만,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의 한계에 빠진 조선의 고루한 선비를 비판하는 데서 서문을 시작한 만큼, 그 방법 또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문에서 구이지학(口耳之學)의 극복 방안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으니, 결론에서는 이 경험적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특히 정량(情量)의 확장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결국 이 서문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박지원의 메시지는 다음으로 귀결되게 된다. 천하의 대관(大觀)을 보려면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과 달리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구이지학(口耳之學)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먼저 공자와 석가와 서양인처럼 직접 천하를 보고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천하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천하의 대관(大觀)에 이를 수가 없으니, 정량(情量) 또한 함께 확장해야 한다. 다만 석가와 서양인이 천하를 대관(大觀)한 방법은 여러 이유로 활용

고 있는 박지원의 사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선광문회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보충 글은 박지원의 글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상기 논문에서는 이본 문제에 대해서 김명호의 주장을 따른다.

20) 김명호, 앞의 논문, 249쪽.

하기 어려운 만큼, 공자의 천하 보기 방법을 따르되 새로운 방법적 전환이 요구된다. 서문이 불완전하고 이본의 내용 또한 그대로 따르기에 부족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3. <일신수필>, 천하의 대관(大觀)을 기록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지원은 <일신수필서>에서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의 한계를 벗어나야 천하의 대관(大觀)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서문이 미완의 상태라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길이 없다. 물론 박지원이 세계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 만큼, 기왕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그 방법들을 조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박지원이 말하고자 했던 바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 오히려 <일신수필서>가 <일신수필>의 서문에 해당하는 만큼 <일신수필>에서 천하의 대관(大觀)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구현해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박지원은 서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780년 7월 15일 기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천하의 대관(大觀), 즉 중국 문화의 본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다. 다분히 의도적인 배치이다. 심양을 떠나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여정, 즉 관외(關外)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자각한 셈인데, 그 내용 또한 서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청]에는 아무것도 볼 만한 것이 없고 춘추대의를 기치로 청나라의 산천의 누린내를 씻어낸 뒤에야 대관(大觀)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사(上士)와 중사(中士)는 귀와 입에만 의지하여 학문하고 정량(情量)의 한계가 분명한 자이며, 순간에 지나지 않는 『춘추』를 끼고 앉아 명예를 구하는 자들이다. 박지원은 이들과처럼 중국을 보아서도 결코 대관(大觀)을 볼 수 없음을 말하

고 정량(情量)을 이용후생의 상징물인 똥과 깨진 기왓장으로 확장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에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장관론으로 불리는 이 부분과 이후에 이어지는 「거제(車制)」 등을 연결하여 천하의 대관(大觀)을 논하였다.

그런데 〈일신수필〉에는 이 글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일록(日錄) 외에도 〈북진묘기(北鎭墓記)〉, 〈희대(戲臺)〉, 〈시사(市肆)〉, 〈객사(客舍)〉, 〈교량(橋梁)〉, 〈강녀묘기(姜女廟記)〉, 〈장대기(將臺記)〉, 〈산해관기(山海關記)〉 등 여러 글이 더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교량〉 외에는 이용후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박지원이 중국의 번영상에 조선의 낙후된 경제 현실을 수시로 대비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벽돌과 수레의 사용, 적극적인 해외 통상, 목축업의 장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²¹⁾ 청나라의 번영상을 보여주는 〈시사〉와 〈객사〉 등의 작품은 이용후생과 일정 정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용후생과 동떨어져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천하의 대관(大觀)이라 일컬었던 북진묘와 강녀묘와 장대와 산해관 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박지원은 왜 이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크기를 모르고, 산해관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제도를 모르며, 산해관 밖의 장대(將臺)를 보지 않고는 장수의 위엄과 높음을 모를 것이다.²²⁾

위에 소개한 예시문은 박지원이 〈장대기〉 초입에서 한 말이다. 만리장성

21) 김명호, 「燕行錄의 傳統과 『熱河日記』」, 『한국한문학회연구』 11, 한국한문학회, 1988, 45쪽.

22) 朴趾源, 〈將臺記〉, 『熱河日記』, “不見萬里長城, 不識中國之大, 不見山海關, 不識中國之制度, 不見關外將臺, 不識將帥之威尊矣.”

과 산해관과 장대를 보아야만 중국의 크기와 제도와 장수의 위엄과 높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북학의서>에서 “그 산천은 비린내와 누린내 천지라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²³⁾라고 말한 것과 일맥이 상통한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중국의 크기와 중국의 제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북학의서>에서 “농잠(農蠶)·목축(牧畜)·성곽(城郭)·궁실(宮室)·주거(舟車)로부터 기와·대자리·붓·자 등을 만드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²⁴⁾라고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신수필>에 실려 있는 일록(日錄) 외 여타의 작품들은 박지원이 관외(關外)에서 찾은 중국의 대관(大觀)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나는 하사(下士)이다. 그래서 장관은 깨진 기와 조각에 있고 장관은 똥거름에 있다고 말한다. 무릇 깨진 기와는 천하의 버려진 물건이다. … 똥오줌은 지극히 더러운 물건이다. … 똥거름을 쌓아 올린 맷시를 보아도 천하의 제도는 벌써 여기에 버젓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깨진 기와 조각과 똥거름이야말로 진정한 장관이다. 왜 하필 상곽과 연못, 궁실과 누각, 점포와 사찰, 목축과 광막한 벌판, 나무숲의 기묘하고 환상적인 풍광만을 장관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인가?²⁵⁾

23) 朴趾源, <北學議序>, 『燕巖集』, “其山川則罪之以腥膻, 其人民則辱之以犬羊, 其言語則誣之以侏離, 并與其中國固有之良法美制而攘斥之, 則亦將何所做而行之耶.”

24) 朴趾源, <北學議序>, 『燕巖集』, “自農蠶畜牧城郭宮室舟車, 以至瓦簷筆尺之制, 莫不目數而心較.”

25) 朴趾源, <駟汎隨筆>秋七月十五日辛卯, 『熱河日記』, “余下士也, 曰壯觀在瓦礫, 曰壯觀在糞壤. 夫斷瓦天下之棄物也. … 糞溷至穢之物也. … 觀乎糞壤, 而天下之制度斯立矣. 故曰瓦礫糞壤都是壯觀. 不必城池宮室樓臺市鋪寺觀牧畜原野之曠漠烟樹之奇幻, 然後爲壯觀也.” * 이하 번역은 김철조의 번역을 따랐다.

실제로 박지원이 깨진 기와 조각과 똥거름을 두고 장관이라 일컬었던 것은 그 안에 천하의 제도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깨진 기와 조각과 똥거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이다. 이 법과 제도는 구이지학(口耳之學)에 빠져 있고 정량(情量)이 좁은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 박지원이 말한 상사(上士)와 중사(中士)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하의 버려진 물건이고 똥오줌은 지극히 더러운 물건이니, 사행길에 올라서 직접 보고 경험한다고 하여 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박지원이 묘향산에서 경험했던 구름 아래의 소나기와 천둥처럼, 직접 보고 경험한 뒤에 정량(情量)이 미쳐야 볼 수 있는 것이다.

구광녕(舊廣寧) 성은 의무려산 아래에 있다. … 양쪽 겹문으로 들어가서 시장 점포를 뚫고 지나가니 그 변화함이 요동 못지않았다. …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성(內城)은 완전하나 외곽(外郭)은 많이 허물어졌다. 성안의 남녀들이 집집마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시정의 놀량패들이 수도 없이 떼거리를 지어 말 앞에 둘러싸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성 밖의 관운장 사당은 장대하고 화려함이 요양의 것과 맞먹었다. 사당 문밖의 희대(戲臺)는 높고 깊고 화려하고 사치하였다. 군중이 모여 한창 연극을 하고 있었으나 갈 길이 바빠 구경할 수 없었다.²⁶⁾

비록 궁벽한 두메에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밥그릇은 모두 금벽(金碧)으로 채색한 그림 주발이었다. 그들이 사치를 숭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질그릇과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본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거칠고 조악한 그릇을 사용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자기가 깨지거

26) 朴趾源, 〈駟汎隨筆〉秋七月十五日辛卯, 『熱河日記』, “舊廣寧城在醫巫閭山下。…入兩重門, 穿過市舖, 其繁華不減遼東。…城兩重, 內城完而外郭多頽。城裏士女, 家家出看, 市井遊子, 千百爲群, 圍繞馬首, 不得行。城外關廟壯麗, 伯仲遼陽。廟門外戲臺高深華侈。方群聚演劇, 而行忙不得觀。”

나 이가 나간 것은 버리지 않고 모두 그릇 표면에다 쇠못을 대어서 완전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다만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쇠못이 그릇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단단하게 붙어 흔들리지 않고 그릇 안에 붙인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분원에서 구운 것들은 분명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아! 그릇을 굽는 법 한 가지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온 나라의 모든 일과 물건이 다 그릇의 잘못됨을 닮아서 마침내 습속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랴?²⁷⁾

이에 박지원은 <일신수필>을 구성하면서 위와 같이 일록(日錄)을 먼저 자세히 기록한 뒤에 천하의 대관(大觀), 즉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들어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기(記)와 설(說)의 형식으로 독립시켜 부록화하였다. 위 예시문은 1780년 7월 15일 소흑산(小黑山)을 출발하여 중안포(中安浦)에서 점심을 먹고, 구광녕을 경유하여 복진묘를 구경하고 신광녕(新廣寧)에서 유숙하는 과정에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다. 이 경험 가운데 정량(情量)이 미쳐서 정리한 글이 바로 <복진묘기>·<희대>·<시사>·<객사>·<교량>이다. 아래에 소개한 글은 이 가운데 <객사>의 마지막 대목이다. 거대한 규모의 객사를 통해 중국의 발달한 상업을 엿보았을 뿐 아니라 그릇을 굽는 방법, 즉 그 제도의 다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그릇 굽는 방법과 온 나라의 나쁜 습속을 통찰하였다. 그리 길지 않은 짧은 글이지만 박지원이 중국 사행 중에 본 중국의 법과 제도, 즉 천하의 대관(大觀) 중 하나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일신수필>을 이용후생의 관점에서만 읽게 되면 장관론으로 불리는 글

27) 朴趾源, <店舍>, 『熱河日記』, “雖荒僻去處破敗屋中, 其日用飯滄之器, 皆金碧彩畫之碗楪. 非其尚侈而然也. 陶工窯家之事功, 本自如此, 雖欲用甌瓷惡窯, 不可得矣. 瓷之破缺者不棄, 皆外施鐵釘爲完器, 但所未可曉者, 釘不透內, 而緊含不退, 襪粘無痕. … 我東分院諸燔, 當不得入市. 噫. 燔燒之法一不善, 而通國之萬事萬物, 盡肖其器, 遂以成俗, 豈不冤哉.”

과 <거제>와 <교량> 외에는 읽을 글이 없게 된다. 이 글들은 <일신수필>에 편재된 글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 나머지 관외(關外)에서 박지원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과 그 가운데 정량(情量)이 미쳐서 달리 정리한 작품들은 모두 놓치고 만다. 더욱이 <일신수필서>가 <일신수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신수필> 처음에 서문을 붙여서 천하의 대관(大觀)을 보는 법에 대해서 논한 뒤에 그 시작에 앞서 천하의 대관(大觀)의 본질을 예시한 것은 다분히 의도된 편재이며, 이는 <일신수필서>와 <일신수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일신수필>은 서문에서 말한 바를 토대로 구성한, 즉 일록(日錄)을 중심으로 보고 들은 바를 서술하되 그중에서 정량(情量)이 미친 바를 기(記)와 설(說)의 문체로 새로이 정리했으며, 그 정량(情量)이 미치는 방향은 바로 천하의 대관(大觀), 바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묘향산에서 바라본 구름 위의 세상이 일록을 채우고 있다면,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름 아래의 세상이 나머지 글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4. 『열하일기』, <일신수필서>를 구현하다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燕行日記)』와 홍대용(洪大容)의 『연기(燕記)』와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흔히 3대 연행록으로 꼽힌다.²⁸⁾ 이 가운데 김창업의 『연행일기』는 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일기체 형식을 따랐고,²⁹⁾ 홍대용의 『연기』는 일록 없이 인물과 사건과 사항별로 주제에

28) 金景善, <燕輶直指序>, 『燕輶直指』,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 湛軒洪氏, 燕巖朴氏也.”

29) 『연행일기』의 일록(日錄) 앞쪽에 <일행인마도강수(一行人馬渡江數)> · <방물세폐식(方物歲幣式)> · <산천풍속총록(山川風俗總錄)> · <왕래총록(往來總錄)> 등 여

따라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이에 김정선(金景善)은 김창업의 연행록은 편년체(編年體)에 가깝고 홍대용의 연행록은 기사체(紀事體)에 가깝다고 하였다. 반면에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위 두 가지 서술방식을 종합한 까닭에 입전체(立傳體)에 가깝다고 하였다.³⁰⁾ 편년체의 서술방식을 취하면 여행의 전 과정을 충실히 기술할 수 있지만 중요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서술이 어렵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산만하고 지리한 느낌을 주기 쉽고, 기사체의 서술 방식을 취하면 주제에 따른 집약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나 여행의 경위를 제대로 전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이 두 가지 서술 방식을 종합하여 일록(日錄) 위에 중요 사항들을 기(記)나 설(說)의 형식으로 독립시켜 해당 편이 부록화 함으로써 앞선 두 가지 서술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³¹⁾

박지원이 김창업과 홍대용의 연행록 서술방식을 종합하여 독특한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창업의 『연행일기』를 홍대용의 『연기』와 이덕무(李德懋)의 『입연기(入燕記)』에서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박지원이 김창업과 홍대용의 연행록을 참고하여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김창업의 『연행일기』에서 홍대용의 『연기』와 이덕무의 『입연기』 및 박지원의 『열하일기』로 이어지는 연행록 간의 영향관계는 독특한 서술방식의 탄생에 필요한 외재적 요건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박지원은 이러한 서술방식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열하일기』를 구성했을까? 그 내재적 동인은 과연 없을까? 연행록의 형식상 흐름을

러 잡록을 편재하여 일록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보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기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30) 金景善, <燕轅直指序>, 『燕轅直指』, “以史例則稔近於編年, 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 而典雅縝密, 朴類夫立傳.”

31) 김명호, 앞의 논문, 47쪽.

살펴보면 1780년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기점으로 서술방식이 다시 일변하여, 19세기에는 일기를 기본 체재로 삼으면서 잡록과 기문(기사) 형식을 적극 활용하여 견문을 분류·재배치하고 있다. 또 시와 산문을 막론하고 문학적인 수사를 중시하기보다는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각종 정보를 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19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³²⁾ 19세기 전반 연행록 가운데 박사호(朴思浩)의 『연계기정(燕薊紀程)』, 한필교(韓弼教)의 『수사록(隨槎錄)』, 김경선(金景善)의 『연원직지(燕輓直指)』 등은 『열하일기』의 형식과 서술방식 등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연원직지』는 『열하일기』의 내용까지도 충실히 인용하고 있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몇 리를 채 못 가서 만수사(萬壽寺)【만수사기(萬壽寺記)가 따로 있다.】를 지나갔다. 또 5리를 가서 원당사(願堂寺)에 닿았다. 정사와 부사가 잇달아 도착하기에 마침내 함께 들어가 관람하였다.【원당사기(願堂寺記)가 따로 있다.】³³⁾

만수사기(萬壽寺記)

만수사는 심양 서문 밖에 있다. 일행은 모두 그냥 지나쳤는데, 성신만이 지나다가 보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사전(寺殿)은 모두 삼중이다. 제1전(殿)은 ‘보제전(普濟殿)’이라 편액을 하여 3좌의 대불을 모셨다. 제2전은 편액을 잊어버렸다. 1좌의 불상을 모시고 좌우로 각각 소불(小佛)을 모셨다. 제3전도 여러 부처를 모셨다.”고 했다. 연암의 『열하일기』에 “어느 때 창건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강희 45년 병술년(1706)에 중수했다. 절 앞에 큰 패루가 있는데, ‘만수무강(萬壽無疆)’이라 편액하였다. 전액(殿額)에는 ‘요해자운(遼海慈雲)’이라 했는데 강희제가 쓴 것이다. 전 안에 있는 향정(香鼎)과 보로(寶爐)와 기타 보완(寶

32)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쪽.

33) 金景善, 〈出疆錄〉十二月初一日, 『燕輓直指』, “行未幾里, 過萬壽寺.【別有萬壽寺記】又五里至願堂寺, 正副使繼到, 遂與入觀.【別有願堂寺記】”

玩)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패루와 제 편액들은 없어지고 오직 기물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하였다.³⁴⁾

그런데 형식과 서술방식 외에 앞서 살펴본 내용 등과의 유사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 예시문에서 보듯 김경선(金景善)은 일록(日錄)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즉 만수사 관람 내용을 기(記)를 통해 기록하여 일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연행록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일록과 기문(記文) 사이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느슨하다. 자신의 보고 들은 바에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각종 정보를 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편년체와 기사체 서술방식을 종합한 만큼 서술방식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정량(情量)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구름 위의 세계만 자세하고 구름 아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상방(象房)은 선무문(宣武門) 안 서성(西城) 북쪽 담장 아래에 있다. 코끼리 80여 마리가 있는데, 코끼리들은 큰 조회 때 오문(午門)에서 의장으로 서기도 하고, 황제가 타는 가마와 노부(鹵簿)에 쓰이기도 한다. 코끼리는 몇 품(品)의 녹봉도 받고, 조회 때는 백관이 오문으로 들어오기를 마치면 코끼리가 코를 마주 엮대어 서 있어서 아무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코끼리가 때로 병이 나서 의장으로 서지 못할 때에는 억지로 다른 코끼리를 끌어 내려 해도 코끼리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상노(象奴)가 병난 코끼리를 끌어다가 보여 주어야만 이를 곧이듣고 바꾸어 선다.³⁵⁾

34) 金景善, <出疆錄>十二月初一日, 『燕巖直指』, “萬壽寺記. 萬壽寺在瀋陽西門外, 一行皆屢過, 獨聖申歷見, 歸言寺殿凡三重, 第一殿, 扁曰普濟, 安三座大佛. 第二殿扁忘之. 安一座佛像, 左右各安小佛. 第三殿, 亦安諸佛. 燕記曰, 未知何時所搨, 而康熙五十五年丙戌重修. 寺前有大牌樓, 扁曰萬壽無疆, 殿額曰遼海慈雲. 康熙書. 殿內有香鼎寶爐及他寶玩, 不可殫記云. 而今無牌樓與諸扁, 惟器玩或有或無云.”

35) 朴趾源, <象房>, 『熱河日記』, “象房, 在宣武門內, 西北城下. 有象八十餘頭, 凡

저 코끼리는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인데 이처럼 그 이치를 알 수 없다. 더구나 천하의 사물은 코끼리보다 만 배나 더 알기 어려우니 어쩌면 좋을까?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설명하였거니와, 그 형상을 통해 만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기를 바란 것이 아닐까?³⁶⁾

서술방식의 종합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만으로는 『열하일기』의 구성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열하일기』에는 <황금대(黃金臺)>와 <황금대기(黃金臺記)>, <문승상사당(文丞相祠堂)>과 <문승상사당기(文丞相祠堂記)>, <상방(象房)>과 <상기(象記)>처럼 연작 형식으로 작성된 텍스트가 존재하는데, 편년체와 기사체의 종합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작품의 탄생과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 소개한 <상방>은 북경 내성의 서남문인 선무문(宣武門) 안에 있던 코끼리 관리시설인 상방을 방문하고 남긴 견문기이고, 아래의 <상기>는 열하에서 움직이는 코끼리를 다시 보고 인식의 오류³⁷⁾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 논한 의문문이다.³⁸⁾ 두 작품은 서로 다른 편에 속해 있지만 유기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상방>은 연행록 소재 코끼리 기사 가운데

大朝會，午門立仗及乘輿鹵簿，皆用象。受幾品祿，朝會時，百官入午門畢，則象乃交鼻而立，無敢妄出入者。象或病不能立仗，則強牽他象以代之，莫能屈也。象奴以病象詣示之，然後乃肯替行。”

36) 朴趾源, <象記>, 『熱河日記』, “夫象猶目見, 而其理之不可知者如此. 則又況天下之物萬倍於象者乎. 故聖人作易, 取象而著之者, 所以窮萬物之變也歟.”

37) 인식의 오류 : <상기>에서 코끼리를 두고 ‘뿔이 있는 놈에게는 이를 주지 않고’, ‘이를 준 것은 하늘이며’, ‘하늘이 이를 준 것은 씹게 하려는 것이고’, ‘이를 가지고 씹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고 일컬었던 자들은 실제로 코끼리를 보지 못한 채 관념에 의지한 채 세계를 인식하는 자들로 <일신수필> 장관론에서 말한 상사(上士) 및 중사(中士)와 다르지 않고, 그 서문에서 비판한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의 한계에 갇힌 자들과 일치한다.

38) 박수필, 「<상기(象記)>에 나타난 박지원의 글쓰기 전략」,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 이강엽, 「연행록(燕行錄)의 “코끼리” 기사(記事)와 박지원(朴趾源)의 <상기(象記)>」, 『한국한문학회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데 영이한 코끼리의 실체와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박지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 정보에 『일하구문』 등 당대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읽힌 백과전서류 서적과 이전 연행록을 통해 변증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텍스트이고, <상기>는 상방과 열하에서 본 코끼리를 매개로 사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오류가 천(天)과 이(理)의 주재성과 실재성을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해석하고 절대화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비판과 성찰을 담은 텍스트다. <상방>은 <상기>에서 다룬 문제의식의 출발이자 중요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상기>에서 비판하고 성찰한 내용의 구체적 결과물이자 증거이기도 하다.³⁹⁾ 그런 만큼 앞서 살펴본 김정선의 『연원직지』 <출강록> 1832년 12월 1일 기사에 보이는 일록(日錄)과 <만수사기>와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

<상방>과 <상기>의 관계는 오히려 <일신수필> 내 일록(日錄)과 기문(記文)의 관계와 구조적으로 더 가까워 보인다. 앞서 <일신수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하의 대관(大觀)을 보려면 먼저 구이지학(口耳之學)의 한계를 벗어나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하는데, <상방>은 이를 잘 구현한 작품이다. 다만 북경에서 코끼리를 직접 보고 그 경험 정보를 축적한 사람은 박지원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⁴⁰⁾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경

39) 이홍식, 『燕巖 朴趾源의 (象房)과 (象記)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50, 동양한문학회, 2018, 152쪽.

40) 대청 사행에 한하여 1637년 이후 17세기 이전 자료에서는 상방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18세기에는 이기지(李器之, 1720), 이상봉(李商鳳, 1760), 이덕무(李德懋, 1778), 박지원(朴趾源, 1780), 김정중(金正中, 1791) 등의 사행 기록에서 자료가 확인된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늘어나 이봉수(李鳳秀, 1805), 권복인(權復仁, 1822), 홍석모(洪錫謨, 1826), 김노상(金老商, 1828), 박사호(朴思浩, 1828), 정원용(鄭元容, 1831), 한필교(韓弼教, 1831), 김정선(金景善, 1832), 조두순(趙斗淳, 1835), 서경순(徐慶淳, 1855), 고시홍(高時鴻, 1859), 이승오(李承五, 1887) 등이 상방을 방문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홍식, 『조선 사신(使臣)이 체험한 북경의 이문화(異文化), 코끼리[象],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힘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정량(情量)이 미쳐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는 박지원의 <상기>에서만 확인이 된다. 선무문 안에 있던 상방과 코끼리는 북경에서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장관이자 기관(奇觀)으로 일컬어졌지만,⁴¹⁾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한 장관과 기관은 코끼리의 기이한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 중국에서 배우고 물을 만한 법과 제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 상방에서의 경험이 조선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회귀하기가 어려웠다. 반면에 박지원은 <상방>을 토대로 정량을 확장하여 전혀 새로운 텍스트인 <상기>를 완성하였다. 상방에서의 경험적 지식에서 중국 문화의 본질을 읽어내고, 이를 다시 조선에 적용하여 고루한 선비들에게 학문적으로는 실학으로 철학적으로는 경험론으로 문화적으로 북학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⁴²⁾ 확인이 가능하다.

위 <상방>과 <상기>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하일기』의 구성과 서술방식 또한 <일신수필서>와 일정 정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하의 대관(大觀), 즉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를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을 변화시키려는 목적과 방법에 맞게 편을 구성한 <일신수필>이 <상방>과 <상기> 외에도 『열하일기』 전반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일신수필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기대하며

본고는 연행록을 매개로 조선 후기 한중교류의 일단, 그중에서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중국을 배우고자 하는

41) 朴趾源, <駟汎隨筆>秋七月十五日辛卯, 『熱河日記』, “初逢自燕還者, 必問曰, 君行第一壯觀何物也. … 曰象房壯觀.”

42) 이홍식, 앞의 논문, 133쪽.

강한 욕망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강록서(渡江錄序)>를 지어 조선과 청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박지원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관외(關外)에서 중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배울 것인지 깊이 다룬 <일신수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 서문에서 박지원은 중국의 대관(大觀)을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의 고루한 선비들과 달리 구이지학(口耳之學)과 정량(情量)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자와 석가모니와 서양인들의 인식 방법을 가져와 그 가능성을 엿보는데, 궁극적으로는 공자의 천하 보기 방법을 따르되 새로운 방법적 전환을 요구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미완의 결론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직접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천하의 대관을 볼 수 없으니 정량을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확인된다.

이 서문은 <일신수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연구자들은 장관론으로 불리는 글과 <거제(車制)> 등 이용후생과 직접 연관된 작품만 주로 다루었다. 그렇다 보니 <일신수필> 소재 대부분의 글들이 평가받지 못하였고, 서문과의 관계 또한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오히려 <일신수필>은 서문에서 주장한 바대로 구성된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 일록(日錄)을 중심으로 보고 들은 바를 서술하되 그중에서 정량이 미친 바를 새로운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그 정량이 미치는 방향은 천하의 대관, 즉 중국 고유의 법과 제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서문이 『열하일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하의 대관, 즉 중국의 법과 제도를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을 변화시키려는 목적과 방법이 『열하일기』의 구성과 서술방식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열하일기』 소재 <상방(象房)>과 <상기(象記)>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방>은 천하의 대관을 보기 위해 구이지학의 한계를 벗어나 직접 보고 경험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고, <상기>는 이 경험 지식에 정량을 더하여 알게 된 천하의 대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방>과 <상기>가 <일신수필서>에서 박지원이 주장한 바를 잘 구현하고 있는 만큼, 『열하일기』와 <일신수필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신수필서>는 비록 미완의 작품이지만 중국 사행 시 천하의 대관(大觀)을 보아야 한다는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텍스트임에는 분명하다. 박지원이 이 텍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일신수필>뿐 아니라 『열하일기』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일신수필서>는 <일신수필>의 서문일 뿐 아니라 『열하일기』 전체를 관류하는 서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일신수필서>와 『열하일기』의 관계를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렸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평가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작품들 사이의 관계를 더 많이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까닭에 여기서는 그 가능성만 열어두고 다음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金景善, 『燕轅直指』
- 朴趾源, 『燕巖集』
- 朴趾源, 『熱河日記』
- 김명호, 『燕行錄의 傳統과 『熱河日記』』, 『한국한문학회』 11, 한국한문학회, 1988, 41~51쪽.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1~343쪽.
- 김명호·신호열 역, 『연암집(하)』, 돌베개, 2007, 1~553쪽.
- 김명호, 『『열하일기』 <일신수필> 서문과 동·서양 사상의 소통』,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225~255쪽.
- 김철조, 『열하일기(1)』, 돌베개, 2017, 1~558쪽.
- 박기석, 『<도강록>에 나타난 연암의 관심사』,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349~373쪽.
- 박기석, 『<일신수필>에 나타난 연암의 관심사-북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4,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7~31쪽.
- 박수밀, 『<상기(象記)>에 나타난 박지원의 글쓰기 전략』,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2007, 261~288쪽.
- 박수밀, 『박지원 서(序)의 서두 글쓰기 전략』,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365~394쪽.
- 박수밀, 『<도강록(渡江錄)>에 나타난 경계의 인식론』, 『한국한문학회』 56, 한국한문학회, 2014, 393~422쪽.
- 박수밀, 『열하일기 첫걸음』, 돌베개, 2020, 1~315쪽.
- 백진우, 『燕行 送序를 통해 본 18세기 南人系 文人들의 意識世界』, 『동아한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1, 207~238쪽.
- 안대회, 『조선후기 연행(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 - 연행사(燕行使)를 보내는 송서(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 한국실학학회, 2010, 87~121쪽.
- 이강엽, 『연행록(燕行錄)의 "코끼리" 기사(記事)와 박지원(朴趾源)의 <상기(象記)>』, 『한국한문학회』 48, 한국한문학회, 2011, 359~390쪽.
-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의 遼東半島 경로 고찰』, 『漢文學報』 20, 우리한문학

- 회, 2009, 5~35쪽.
-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1~538쪽.
- 이현식, 「〈도강록서〉, 『열하일기』를 위한 위장」, 『동방학지』 1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163~203쪽.
- 이현식, 「〈일신수필〉 서문, 청나라 중화론을 위한 학문론」, 『동방학지』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157~181쪽.
- 이흥식, 「조선 사신(使臣)이 체험한 북경의 이문화(異文化), 코끼리[象],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419~442쪽.
- 이흥식, 「燕巖 朴趾源의 <象房>과 <象記>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50, 동양한문학회, 2018, 133~157쪽.
-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41쪽.
- 임준철, 「대청사행(對淸使行)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141~181쪽.

ABSTRACT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Park Jiwon's *Ilinsuphil* Park Jiwon

—In connection with the perception of China

Lee, Hong-shik

This paper explores a type of literary intellectuals' consciousness toward Chin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mediation of *Yeonhaengrok*. This paper focuses on *Ilinsuphil* written by *Park Jiwon* as a main analysis text. As this text deals with the discussion of what to learn and how to learn in China in great detail it allows us to study one perception of China in the late *Joseon* period.

However, not only are the discussions in the introduction in consis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and *Ilinsuphil* has not been properly revealed. Therefore, the details of what and how *Park Jiwon* was trying to learn in China are not clearly revealed. In this paper, w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re-read *Ilinsuphilseo*. To obtain the results,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not only with *Ilinsuphil* but also with *Yeolhailgi*.

Park Jiwon tried to create a magnificent spectacle of the Chinese, that is, the Chinese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This paper confirms that 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overcoming the limits of *Gujihak*(口耳之學) : he does not look deeply into what he hears through his ears; he only conveys it to others through his mouth, and cannot make it his own at all) and *Jeongryang*(情量), unlike other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state that *Ilinsuphil* and *Yeolhailgi* were compos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method suggested in this introduction. This paper describes what *Park Jiwon* saw and heard, centering on daily records, and summarizing things affected by *Jeongryang*(情量) in the new formats.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direction of *Jeongryang*(情量) was supportive of China's government, that is, China's

unique law and system.

The introduction, daily records and other records of *Park Jiwon's Ilsinsuphil* are texts that show one type of literary intellectuals' consciousness toward China in the late *Joseon* dynasty. Among them, the introduction serves as the basis for the composition and description both *Ilsinsuphil* and *Yeolhailgi*;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ewly evaluate the introduction of *Ilsinsuphil*, which wholly permeates *Yeolhailgi*.

Key Words *Ilsinsuphil*(駙汎隨筆), *Ilsinsuphilseo*(駙汎隨筆序), a magnificent spectacle of Chinese, the Chinese system, *Gujihak*(口耳之學), *Jeongryang*(情量)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